

- 주요 뉴스: 연준 파월 의장, 인플레이와 공급망 교란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
 - 미국 10월 제조업 PMI 7개월래 최저, 서비스 PMI는 3개월래 최고
 -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6.75% → 7.5%로 예상보다 큰 폭 인상
 - 유럽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세, 일부 동유럽 국가 재봉쇄 돌입

■ 국제금융시장: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

美 주가 하락[-0.1%], 달러화 약세[-0.2%], 금리 하락[-7bp]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기술주 약세, 차익매물 등으로 하락. 다우는 사상 최고치
유로 Stoxx600 지수는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모면 소식에 0.5% 반등
- 환율: 달러화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, 헝다그룹 우려 완화 등으로 약세
유로화가치는 0.2% 절상, 엔화는 0.4% 절상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파월 의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견제
발언 등으로 하락. 독일은 약보합세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78.3원, -0.4원) 0.03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0/22일	10/21일	전일대비			10/22일	10/2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544.9	4,549.8	-0.11%	국채 금리 10y	미국	1.63%	1.70%	-7bp
	유럽	471.9	469.71	0.46%		독일	-0.11%	-0.10%	-1bp
	중국	3,582.6	3,594.8	-0.34%	CDS 5y	한국	19bp	19bp	-
	일본	28,805	28,709	0.34%		중국	47bp	48bp	-1bp
	한국	3,006.2	3,007.3	-0.04%	위험 지표	EMBI+	374	371	0.64%
환율	달러지수	93.61	93.77	-0.17%		VIX	15.43	15.01	2.80%
	유로화	1.1643	1.1623	0.17%		WII유	83.76	82.50	1.53%
	엔화	113.50	113.99	0.43%	원자재	구리	449.8	455.9	-1.33%
	위안화	6.3850	6.3932	0.13%		금	1,792.7	1,782.9	0.55%
	원화	1,177.1	1,177.2	0.0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
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파월 의장,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

- 테이퍼링은 개시하기 위한 경로에 있으며 경제가 예상대로 전개될 경우 내년 중반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. 공급망 부족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
-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가고 임금에 대한 압력도 커지겠으나, 물가상승 압력은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내년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
- 아직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니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규정하고 그 위험이 심각해진다면 물가안정을 위해 분명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10월 제조업 PMI 7개월래 최저, 서비스업 PMI는 3개월래 최고

- IHS Markit 10월 제조업 PMI(예비치)는 59.2로 전월(60.7)과 예상치(60.5)를 하회, 반면 서비스 PMI(예비치)는 58.2로 전월(54.9)과 예상치(55.5)를 상회
- IHS Markit은 10월에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하면서 서비스 부문의 확장세가 나타났으며, 제조업은 공급망 병목현상과 노동력 부족으로 부진했다고 분석

■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6.75% → 7.5%로 예상보다 큰 폭 인상

- 금년 들어 여섯 번째 인상으로, 중앙은행은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상황과 높아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물가상승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
- 나비율리나 총재는 100bp 인상도 고려했었다며 인플레이션 관련 상황이 잠재적으로 위험해 긴축사이클의 종료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

■ 유럽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세, 일부 동유럽 국가 재봉쇄 돌입

- 21일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5.2만명으로 세 달만에 5만명을 상회했으며, 벨기에·네덜란드·덴마크·러시아·체코·라트비아 등에서도 빠르게 확산
- 서유럽 국가는 아직 방역조치 강화에 미온적 입장이나 러시아는 상업시설에 대한 휴무령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선회했고, 라트비아도 재봉쇄 조치에 돌입

■ 미국 2021 회계연도 재정적자 \$2조7,720억으로 역대 2위

- 재무부와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경기회복으로 작년보다 \$3,600억 가량 줄어들었으나 1945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며, GDP의 12.4%

■ 유럽 10월 서비스업 PMI 부진

- 9월 56.4에서 54.7로 예상치(55.4)도 하회했으며, 제조업 PMI는 58.6에서 58.5로 소폭 하락. 종합 PMI는 3개월 연속 하락하며 4월 이후 최저치
- IHS Markit은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가 전반적인 서비스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

■ 미국 인플레이션 내년까지 4% 웃돌 가능성

- 월가 채권왕인 제프리 건들락은 거주비와 임금 상승 등으로 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으며,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'21년 인플레이션은 5%대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4%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

■ 영국 기대 인플레이션(BEI, Breakeven Inflation Rate) 급등

- 22일 국채시장에서의 10년 BEI는 장중 한때 4.25%까지 상승하며 25년래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번주 들어서만 20bp 이상 상승

■ 나토 회원국,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기밀전략 합의

- 발트해와 흑해지역에서 핵무기, 컴퓨터 해킹, 우주에서의 공격 등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, 이는 나토의 핵심 목표가 중국이 아닌 러시아 억제라는 점을 재확인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22 현지시각 기준)

- 영국 10월 제조업 PMI: 57.7, 9월(57.1), 예상치(55.8)
- 영국 10월 서비스업 PMI: 58.0, 9월(55.4), 예상치(54.5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ob@kcif.or.kr